

청년들 목소리 정책에 담는다

전주시, 의견 수렴 기본계획 반영 위해 '청년정책 원탁회의' 가져

전주시 모든 청년들이 행복함을 느끼며 희망을 키우는 '청년희망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전주시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전주시 청년센터 청년이음전주에서 전주시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9일 '청년정책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원탁회의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전주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의견을 듣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회의를 통해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청

년정책 제안기구인 청년희망단원과 청년 활동 및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 등 20여 명이 참여해 자신이 바라는 청년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그동안 전주시 청년정책에 대한 실험연구 및 현황·실태조사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이를 토대로 도출된 '관계 맺기, 정주성' 성장의 3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참가자간 그룹별 세부 욕구를 탐색하고 유형화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또 보이는 라이오 방식을 활용해 세 부 상황을 설정하고, 그룹별 발표를 통해 전주시청 청년들이 바라는 청년

정책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제안하고 사업아이디어도 이끌어 냈다.

이번 원탁회의를 통해 전주시는, 도출된 청년들의 의견을 청년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청년의 유출을 막고 청년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청년이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청년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맛과 멋 버무린 '전주김장문화축제' 개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김장나눔·김장담그기 체험행사 진행

전주시가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전주푸드 식재료로 김장을 담그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김장문화축제의 장을 열었다.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주 종합경기장, 전주푸드 직매장' 등에서 맛의 고장 전주의 김장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맛과 멋'을 버무린 '2022 전주김장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주시청·단체들이 참여해 주변 이웃들과 나누는 '김장나눔행사'와 200여 가족이 참여한 '김장담그기 체험행사'로 구성됐다. 또 400여 가족은 배추와 양념을 가까운 전주푸드 직매장에서 수령해 집에서 김장을 손수 담가보는 방식으로 진

행했다.

김장체험행사에서는 '전주김치명가 안명자 명가'의 레시피로 버무린 김치소가 제공되고, 김장나눔행사는 '전주 김치명가 김명옥'의 레시피로 버무린 김치소가 제공됐다. 김장재료는 지역에서 생산되고 안전성이 인준된 농산물이 사용됐다.

체험행사에 제공된 양념은 시원하고 개운한 전통김장의 맛을 살리고, 전주 10미(味) 중 하나인 미나리가 들어가 전주고유의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축제를 통해 전주시청 농민이 생산한 '양파, 무, 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에 필요한 김장재료를 판매하는 '김장직거래장터' 운영도 마련되어 시민들의 흥을 돋웠다.

/김영태 기자

올해 전주김장문화축제는 일회용품 지급을 최소화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ESG 환경축제로 운영돼 의미를 더했다.

여기에 축제는 이태원 참사의 국가적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 김장 본연의 취지에 집중하고, 기존에 계획했던 체험 및 이벤트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는 등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유정희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은 "꼭거리의 안전을 지키는 전주민의 김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나눔, 공동체문화, 탄소 중립 실현'을 기치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위로하고 치유하는 김장문화축제로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우리의 김장 문화를 즐기고 함께 나누는 뜻깊은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설공단 임직원 중고품 릴레이 기부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에 500여점

전주시설공단 임직원들이 중고품 기부에 나서며 자원 순순환에 일조를 하며,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에 중고품 500여 점을 지난 18일 기부했다.

김진형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 공동대표는 "공단 직원 수를 감안해 큰 상자 2개 정도 분량이 답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 차 가득 실려 있어 놀랐다"며 "아름다운가게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공단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구대식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은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ESG 경영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자발적인 시설공단 직원들의 성금모금은 올해로 5년째 진행 중에

있으며, 모은 성금은 '독거노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되고 '기술 봉사 활동, 주차선 그리기 봉사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무료 급식소 배식 봉사, 쓰담달리기(플로깅), 사랑의 연탄 나눔, 플라스틱 병뚜껑 기증 등 각 부서별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공단은 마을버스운영부는 사회공헌 유공으로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 경영, 지역민과 상생하는 책임 경영으로 공기기업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 완산희현당사적비' 도지정문화재 됐다

전북도, 지정 고시... 사적비 2기에 희현당 건립 과정·목적·운영 방법 등 기록

조선시대 호남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이었던 희현당의 건립 과정과 목적 등이 기록된 완산희현당사적비(完山希顯堂事蹟碑)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다.

전라북도도는 지난 18일 전주신흥학교 교정에 위치한 전주 완산희현당사적비(完山希顯堂事蹟碑)를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이와 관련 1700년 전라감사 김시걸이 직접 세운 교육기관인 희현당은 한강 이남에서 가장 먼저 건립된 영학(營學)으로, 이곳에서는 매년 53개의 고을의 수령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한 유생 중 최종 30명을 선발해 양성했다.

현재 희현당은 사라지고, 그 터인 전주신흥학교 교정에 2개(사적비와 중수사적비)의 비석으로 구성된 전주 완산희현당사적비만 남아있다. 이 비석에는 희현당의 건립 과정과



전주 완산희현당사적비 전경

목적, 운영 방법, 중수 등이 사실이 기록돼 있어 조선 후기 교육 진흥의 실례로서 교육사적·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은 "희현당은 전라도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지금은 비록 비만 남아 그 터를 지키고 있다"면서 "향후 희현당과 관련한 조사를 통해서 희현당이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중요성을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주시, 수능 종료 후 인파밀집지역 합동점검

행안부·전북도·유관기관과 안전 대응체계 가동

전주시는 수능시험 종료 후 많은 학생들의 이동과 인파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점검에 나섰다.

시는 먼저 16일 고사동 영화의거리 등 시내 밀집예상 지역 대상으로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전 점검을 시행했다.

특히 시는 수능 당일인 지난 17일 전주시 수능지원차는 총 36개교 9229명으로 파악하고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안전정책과, 전북경찰청, 전북소방본부' 등 37명 규모의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인파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 분산을 유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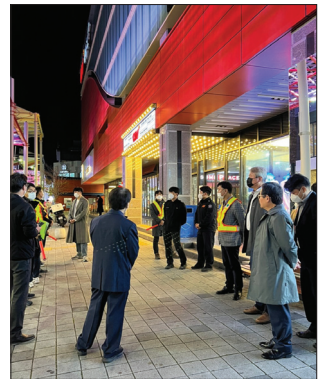
또 거리차량 주차계도와 보행공간내

통행지장물 정비사항 등도 함께 점검했다.

여기에 시는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안전정책과' 과 수능 안전대책 회의를 갖고, 인파 밀집사고에 대비해 예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전주에서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 무사히 사고 없이 넘길 수 있었다"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삶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인 만큼 앞으로도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현장점검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는 지난 16일 고사동 영화의거리 등 시내 밀집예상 지역 대상으로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전점검을 시행했다.

전주완산소방서,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동참해 주세요"

전주완산소방서는 음식점 등 주방에서 발생하기 쉬운 '식용유 화재'를 대비해 적응성이 우수한 'K급 소화기 비치'를 지난 18일 당부했다.

'K급 소화기'란, Kitchen(주방)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식용유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화재를 진압해 주방 화재에 효과적인 소화기이

다.

지난 2017년 6월에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K급 소화기 설치 대상은 '음식점,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의 취사장이 있는 주방에 설치해야 하며, 주방의 바닥면적이 25㎡ 미만이면 K급 소화기 1대, 바닥면적이 25㎡이

면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면 된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화기 취급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주방 화재 발생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K급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